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1일 월요일 음 8월 5일 (12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17-19℃, 낮 최고 기온은 25℃로 전망되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precipitation percentages for various locations like Seogwipo, Seogwipo,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Sunrise) and 해질 (Sunset) times for various locations like Seogwipo, Seogwipo, and Seogwipo.

Table with 3 columns: 내일 (Tomorrow), 구름 많음 (Cloudy), and 20/23℃.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Food poisoning index) and 자외선지수 (UV index).

월드뉴스

영국, 코로나 격리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진자 급증에 강력 대응

영국 정부가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파운드(약 1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자에게 증상 발현 후 열흘간 집에 머물고, 유증상자와 함께 사는 이들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또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가족의 밀접 접촉자 등 기타 감염의 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입국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이런 격리 규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리일보 (Hanri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website address.

백록담



백금탁 정치부장

민선 7기 후반기를 시작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초반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지난 18일 고은숙 제일기획 자문위원을 제5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 내정하며 사실상 제주도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를 비롯한 공무원 인사는 물론 유관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정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8월 중순, 원 도정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무더기 직무대리 국장을 양산하며 '승진잔치'를 벌였다.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6개월짜리 국장'이 대거 나왔다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승진연한이 되지 않은 '직무대리 국장'이 무더기로 나왔다.

민선 7기 하반기, 원 지사의 사람들

할 수 있다. 전체 승진자만 171명(3급 4, 4급 20, 5급 42명 등)에 이르며 그들만의 축제는 이어졌다.

앞서 원 도정은 지난 1일 제주도의회 청문회에서 편법 용역수주와 부실용역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삼현 제주연구원장과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으며 최근 사회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원 지사의 선거를 도왔다가 별급형을 받았던 오경생 제주의료원장도 '보은인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이 권력을 추종하는 측근을 위한 '직업소개소'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인사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 것이 뻔한 데도 인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도민 정서와 여론은 양중에도 없고, 그

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오만과 독선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원 도정은 지난 6월 초,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동우 제주시장과 김태엽 서귀포시장을 임명했다. 안 시장은 직전 정무부지사였고, 김 내정자는 원 지사 비서실장과 직전 부시장을 지냈다.

안 시장이야 20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김 시장의 경우는 지난 4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별급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 역분부는 성명에서 "이번 인사 내정은 청렴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이자 도민 정서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이자 인사 참사"라고 성토했다.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 사이에 이뤄진 원 도정의 인사 모습이다. 그러면 이러한 무리한 인사의 배경이나 뒤에 깔린 포석은 뭘까. 전자는 '보은인사'이고, 후자는 '선거 대비'다. 대선에 나서겠다는 원 지사가 결국 1%의 제주가 전국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면 다시 3선 도지사에 도전 위한 대비책이다. 이제 많은 도민들의 그 노림수를 알고 있다.

승진잔치나 원하는 부서이동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반대로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지. 결국, 역사적으로도 일방 통행식 정치인의 결말은 '차탈'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원 지사가 도지사 3선에 도전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추석 연휴에 이에 대한 말들이 무성할 듯하다.

열린마당

추석 명절을 맞는 노인복지시설



윤세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장

지난 설 명절 이후 먼 곳에서 코로나19가 온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만 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듯 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던 초기에도 제주도는 안전한 곳으로 인식돼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먼 나라 먼 곳이 아닌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 왔다.

그 중 노인복지시설은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어르신들은 면회, 외출, 외박 금지와 직원들은 활동이 제한되고 무더기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근무를 해야 하는 일들이 일상이 돼 버렸다.

타 시도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어르신들이 사망했다거나 코호트 격리 등의 조치가 시행됐지만, 제주주는 환층 강

화된 방역 수칙을 시행,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면회를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과 보호자간의 면회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어르신은 시설 내에서, 보호자는 시설 밖에서 음향시설을 사용해 이뤄진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온다.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고 어른에 대한 고마운 뜻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어려운 국난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세워가며 자녀를 교육시키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헌신적인 삶을 사셨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노인성 질환의 고통을 이겨내며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것도 안타까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보고 싶은 가족과 만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마음이 아프지만 하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과 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눠 보세요



최은정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김재진 시인의 시가 있다. 어른이 되고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듯 "너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어. 괜찮아"라고 이야기 해 주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위로가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만남이 차단된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가고, 고독감도 날로 깊어지는 듯하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지만 그래도 힘든 때에 누군가가 함께 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사회복지공무원으로 5년 남짓 일 해오면서 다양한 어려운 삶을 마주했던. 원치 않았지만 찾아온 삶의 고난들로 힘겨워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삶이었던 것 같다. 가족관계 해체는 대부분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 가족 모두가 모이는 명절, 바로 지금 이맘 때일 것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명절에는 내 주변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한 번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마을 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 명절 음식을 나눠 준다면, 큰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봐 준다면 우리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 주민센터에서는 추석맞이 이웃돕기 창구가 마련돼 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지만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 내 추석맞이 이웃돕기 창구를 통해 마음을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별 때 일수록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본래 사랑이란 것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법이니 말이다.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All varieties of citrus fruit seedling distribution) with contact info and product list.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Citrus seedlings) listing various types like '아스미 4, 5년생' and '석파농산'.

Advertisement fo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Jeju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y Hanra)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티엔정보기술(주)' (Tien Information Technology) showing a network diagram and service offerings.